

“아직 모르기에 알수있어” 14 선지식-지유 스님 “동심은 불심, 누구나 갖고 있어요” 9 도반의 향가-신현득 “무상 이해하려말고 버려요” 13 설법전-구나라타나 스님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인간방생 19 문화-김흥국

‘양복 바지·한복 저고리’는 그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현대한국불교 건축의...’ 학술대회 주목

사찰 건축은 불교도의 구현이라는 상징을 담고 있다. 도심교가 강조되면서 기와를 얹고 목재를 사용했던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도심 사찰이 속속 들어 서면서 도심형으로 절충된 사찰모델이 제시됐지만, 콘크리트 건물 위에 기와지붕을 어정쩡하게 얹은 모습은 ‘양복바지에 한복 저고리’를 입힌 듯 어색하기만 하다.

한·중·일 삼국의 건축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현대 불교 사원의 유형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공동회장 강동균·김용환)는 11월 1일 부산 안국선원(원장 수불)에서 ‘현대한국 불교건축의 방향과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제6회 주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전통건축 전문가인 신영훈 원장(한옥문화원)은 ‘전통건축에서 본 현대 한국불교건축의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의 대표건축가로 알려진 우경국 교수(한양대)는 ‘현대불교건축의 새로운 모색’을 발표했다. 이어 김개천 교수(국민대)가 ‘한국 현대 불교 사찰의 건축과 방향에 관한 고찰’, 카노 타다마사 교수(일본, 오사카예술대)가 ‘안국선원의 건축 플랜과 일본 현대불교사원의 건축 흐름’, 꺾다이형 교수(중국, 칭화대)가 ‘중국 불교사원 건축의 성립과 전개’를 발표했다.

#사원건축의 주제는 출가자

신영훈 원장은 “사원건축의 목적이 부처님 이상세계를 구현하는데 있으나 도심법당에서 이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며, “터를 고르는 일부 터 조사전을 이룩하기까지 구비될 모든 것이 갖춰져야 도량다운 면모를 갖는다”고 말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우리 시대의 불교건축은 어떠해야 할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11월 1일 안국선원에서 국제학술회의를 열고 현대불교사원의 모델을 제시했다.

하지만 건축면적 등의 제약은 도심에 지어지는 사찰이 산중사찰처럼 일주문에서부터 탑, 법당, 부도에 이르기까지 구색을 모두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신영훈 원장은 “어떤 경우라도 건축을 시작하기 전 도량 조영의 의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도량은 선지식의 이상성의 추구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도량은 스님이 시작하고 완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신 원장은 “무심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지 않으니 불사를 하면서도 항상 살피아야 한다”며, 불사에 대한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사원건축 시대와 소통해야

우경국 교수는 불교건축물의 열린 공간화를 주장했다. 우 교수는 “불교가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등으로 변화했듯 불교 건축의 변화도 필연적”이라 말했다. 꺾다이형 교수는 둔황 막고굴과 운강석굴 등 석굴사가 불전형, 탑형

형, 승원식 다실굴 등으로 변화했다. 사실을 소개해 우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개천 교수도 “경제적·도시적 접근에 따라 건축양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사원 건축이 초기에는 중국 궁궐 건축 형식을 따랐으나 삼국시대 후기에 이르러 기능성과 공간성을 중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통일신라시대에는 선종의 영향으로 점차 자유로운 공간구성을 했고, 고려 시대에는 대중화되면서도 우아하고 단정적이면서도 변화무쌍한 공간적 성이 나타났다”며, “조선시대 사찰은 자유로운 가운데 엄격한 질서를 내재했다”고 설명했다.

발표자들 모두 현대 불교 건축의 소통이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개천 교수는 “이 시대 불교는 대중과 친밀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국 교수는 르네상스 이후 건축 양식에 큰 변화를 겪은 개신교와 카톨릭을 예로 들었

다. 우 교수는 “우리나라 교회건축도 상당한 변화를 거쳤으나 대부분의 사찰건축은 변화가 없다”며, “간혹 현대의 건축적 경향을 수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형식 변화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불교건축은 수행자, 신도, 문화, 시대정신, 자연 등이 소통하고 통섭되는 형식”이라 말했다.

목조 건축물의 구조적 한계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우경국 교수는 “목조건축이라 세로보다 가로가 선호되면서 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서는 측면을 보고 절해야 하는 구조”라며, “전통사찰 형식을 고수하는 것은 기능적 불편뿐만 아니라 과거의 문화적 가치를 훼손

하거나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전통은 만드는 것이지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종교적·예술적 감동 줘야

우경국 교수는 “종교적·문화적 의미의 결합, 전통형식과 시대미학의 결합, 불교의 상징성에 대한 재해석,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설정, 사회·문화·대중과의 소통을 감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개천 교수는 “현대 불교 사원은 전통의 단절을 겪은 후 여러 가지 형식을 실험중인 단계”라며, “결국 불교 건축물은 프로그램이 불교적 감동을 주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조종성 기자 cetana@buddhapia.com

대구범불교도대회 현장
관련기사 ▶ 5면

진실은 꼭 밝혀진다

얼마 전, KBS-2TV ‘추적 60분’은 ‘보스톤에서 온 편지’ 편에서 도요타 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의 진실을 밝히고자 11년째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최혜현(45, 법명 무상각) 씨 가족을 소개했다.

지난 97년, 아이들과 함께 쇼핑을 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최 씨는 차량결함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목뼈를 다쳐 전신마비의 중환자가 됐다. 전신마비 환자가 된 그의 아내와 어린 세 자녀를 돌보고, 집안 일까지 도맡아 하며 1인4역을 10여 년간 묵묵히 해왔던 엔지니어 박사출신의 남편 최형철(50)

씨는 의문의 사고원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했다. 이후 속속 밝혀지는 의문점들과 사고 당시와 달라진 차량상태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고조작 의혹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도요타 회사로부터 차량결함이 아니라 운전미숙의 시인을 조건으로 최 씨부부에게 백만 달러의 합의금이 제시됐지만 부부는 고심 끝에 이를 거절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인 대기업과의 힘든 법정투쟁에 나선 최씨가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0여 년간의신묘장구 대다라니 수행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7년 보스톤 문수사 도범 스

님으로부터 불명을 받은 최 씨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힘든 불편한 몸으로 다음카페의 ‘미주현대불교’ 카페를 운영하면서 하루 100개 이상의 글을 불교카페에 올리는 등 법보시에 최선을 다해왔다. 불교공부를 하며 직접 그림을 디자인해서 불교음악도 올려 온 최 씨는 내년 초 발행될 <미국 불교사>의 한글본 교정 일까지 보고 있다.

10년 동안 다라니 정진을 하려도 빠지지 않고 해 온 최 씨는 2시간의 기도를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당을 찾아가는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다라니 정진이 밤낮으로 이어지자 7년

동안 달고 다니던 욕창이 없어지는 기적도 일어났다. 2006년 가을에는 정진중에 쫓겨난 방벽에



도요타 상대 법정투쟁 11년 최혜현 불자 ‘초인적 보살행’

불어놓은 관세음보살 사진과 똑같은 모습으로 화려한 체험을 여러 번 하기도 했다.

최 씨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11년 동안 7만불이상의 소송비용이 소요되는등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에서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홈페이지(www.choifive.net)와 다음카페(cafe.daum.net/toyota) 등에서는 현재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김성우기자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조종성님의 흥미진진 이야기
금강선원 뽕잎차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아생 수제 구즈구즈 뽕잎차
뽕잎차 주문 TEL 055) 931-9590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대나무숲

“술 향산술 원액 100%”
청다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물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관명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소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관음 전용 **관불수향**
울긁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1개금불 1비취옥불 1백옥불 1대나무숲불

규격 : 소불 - 5처, 7처, 9처, 1자(108-1,000불) /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내)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원하시는 가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1LED 인등 (해남 대흥사) 1영가위패단 (파주 보광사)

최신식 전선 자동 연등 승강장치

1최신식 연등자동승강장치 (광주 보광사) 1LED 전구 (국내 공장 자체 제작)

- LED전구는 국산품만 사용합니다
- 전선은 KS 케이블을 사용하여 안전합니다
- 전문기술진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버튼 하나로上下 조절하며 명찰과 연등 달 때 편리합니다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대나무숲불, 영가위패단,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옥촛대, 연등전선승강장치

正宇불교예술원(구. 정심원) www.jeongwoo.info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목(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